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LINK MUSIC

기업형 배경음악
AI 에이전트 서비스

칠로엔

AI 아트 플랫폼

AI MUSIC

KEENEAT

AI 음악작곡
생성 서비스



“통합 리더십으로 ‘경제의 불씨’ 살려라”

| 메트로 提言 |

이재명 정부가 4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3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위급하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나 코로나 사태로 어두운 터널에 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사방이 난제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우외환’에 맞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다. 민간에 부동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과도한 세금은 낮추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원전 산업도 좋지만, 재생에너지 등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구제와 경제 허리인 20·40세대의 일자리 대책 마련

도시급하다. 퍼주기식은 안 된다. 나라 공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공약과 정책은 욕 먹을 각오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도 찾아 나가야 한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북한은 새 대통령 취임 때마다 어김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 왔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 등 우방들과 북핵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 정부 3년간 사실상 주종 관계로 전락한 한·미 동맹이나 다자간 외교를 복구하고 퍼주기식 저자세를 보인 한·일 관계, ‘배척’ 자세로 일관한 한·중 관계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펴기 힘들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내놔던 취지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대선에서 나온 적잖은 표차 승리의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한다. 내 편만 챙기는 국정을 해선 안 된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발목을 잡아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길을 가겠다’는 오기의 정치는 갈 길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여야 대화도 끊어지고 너무 적대화돼 있다. 대통령이 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을 만나겠다”, “정치라는 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야당도 바뀔 수 있고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본과의 정상화’란 외교 치적 쌓기에 몰두한 채 역사적 진실이 내팽개쳐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던 초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만 듣지 않아도 큰 성과일 것이다.

보험이라는 불안



기지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심리적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산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숫자들은 그 확신을 뒤흔든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금리 하락과 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겹치자 약속의 담보인 자본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119.93%, 동양생명 127.20%, 캐롯손해보험 68.57%으로 권고치 15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작년 말 4.1%로 유일하게 미달했던 MG손해보

험은 이번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MG손보의 신규 계약을 전면 정지했다.

결국 MG손보가 가진 151만건의 기존 계약은 삼성·DB·현대·KB·메리츠 등 5대 손보사로 넘기고 전속 설계사 460명은 이직을 주선받게 됐다.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은 유지되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보험사의 부실은 ‘안전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새로운 위험’을 제시한다. 신규 가입자는 회계표를 들여다보면서 망설이고 MG손보처럼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보험증권 대신 보도자료를 재확인한다. 보장을 믿고 납부한 돈이 또 다른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역설이다.

금융당국은 K-ICS 권고 기준을 130%로 낮추는 완충장치까지 꺼냈다. 그러나

기준을 내린다고 체감 신뢰가 오르지 않는다. 보험사가 ‘약속’을 회계기법으로 미화하는 동안 시장은 보이지 않는 불안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보험사들은 급히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찍어내며 ‘긴급 수혈’에 나섰다. 한화생명엔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 자금 전액을 K-ICS 비율 제고에 사용한다.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2140억원 주문을 확보했다.

보험은 ‘신뢰 이자’를 받는 산업이다. 그 이자가 거품으로 드러나는 순간 보험증권 한 장은 효력 없는 종이가 된다. 숫자는 회복될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는 회계표에 적히지 않는다. 신뢰 없는 보험은 불안 그 자체다. 보험사는 ‘보장’이란 말의 무게를 되새겨야 할 때다. /gh471@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4일 (금 5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48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60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오듯이 해결. **72년생** 밤을 건너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8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37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49년생** 깔끔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 **61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자. **7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85년생** 가장 큰 복구는 자신의 성공뿐이니.



38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 **50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62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 **74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86년생** 시간만 속내는 일은 인제 그만하자.



3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1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63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75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87년생** 금전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4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52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64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 저축을 가입. **76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만. **88년생**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41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3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잘못은 없는지 생각. **65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 **77년생** 내 탓에 산다 해도 예의는 지켜라. **89년생** 체면치레하다 지갑이 텅 빈다.



42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5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66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78년생** 일단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보라. **9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해야만.



43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55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67년생** 상대를 존중해주면 마음을 얻어 보랍다. **79년생** 부모님의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9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4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5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68년생**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 주의. **80년생** 신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라. **92년생**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인내하는 것이.



45년생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5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69년생**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81년생 인생 한 구두쇠 작전보다는. **93년생** 길이 없는 곳이라 힘든 여행이 시작된다.



46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58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70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여행 조심. **8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마음으로 직장에 성실하게. **94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신념대로 행동.



47년생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보자. **5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7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8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열 번 생각하고 시작. **95년생** 사람됨이 순수하다보면 결과가 발생한다.



김상회의四季

복과 화

복(福)을 바라고 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고 이름에 ‘복’자를 넣는다. 복(福)자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술이 가득 담긴 술병과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늘에 복을 비는 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절에 가서도 보면 보시금 넣는 곳 이름도 ‘복전함(福田函)’이다. 복의 터전이 되는 밭, 그러나 복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전함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보시금을 넣는 것은, 복을 바라고 넣는다면 거래가 되는 것이요, 나의 인생함을 즐기고 이 보시금이 공덕이 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복과 화는 별개가 아니다. 복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복의 원천을 지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이 스스로 멀어지느니라.”(東岳聖帝垂訓 曰一日行善 福雖未至 禍自遠矣, 一日行惡 禍雖未至 福自遠). 연이어 나오는 구절 역시 아름답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에 풀과 같아서 그 풀이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더하여 늘어가는 것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숫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숫돌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라.”복을 짓는 것이 악과 멀어지게 하니 화를 면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있다. 유명한 요변사훈(了凡四訓)에서도 하루 선행 세 번을 꾸준히 실천하여 단명수와 무자식 팔자를 장수와 가문의 창성으로 운명을 개조하지 않았던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산업부, 전기·수소·자율주행車 첨단기술에 341억 추가 투자

오늘부터 한 달간 신규과제 공고
전기차 캐즘에도 성장가능성 커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SDV용 고성능 반도체 등에 지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업계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AI 기반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와 국제 안전규

제)이며, 341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앞서 올해 2월 1차 공고를 통해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가스공-서부발전, 800만톤 천연가스 계약

2036년까지 年 75만톤 공급받아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새롭게 유치
설비 이용률 등 높여 요금인상 완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2025년~2036년까지 구미·김포·공주천연가스 발전소에 연간 75만톤, 전체 약 8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용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새롭게 유치하게 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과 이용 효율을 높여 가스 요금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만톤의 누적 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은 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아랫줄 왼쪽 4번째)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아랫줄 왼쪽 3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간 양사가 이어온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천연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협업을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 지난해 11월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 효율화·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초 양사는 경북 칠곡 북삼-군위 구간에 각각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

기로 합의해 배관 노선을 줄이고 설비 규모도 최적화했다.

아울러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해 건설 투자비, 설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인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사 설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中企 5곳에 임금피크 인력 파견

수소산업 전환 실무 수행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소속 임금피크 인력들이 동해·삼척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파견돼 수소산업 전환을 돕는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일 본부 대강당에서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셰르파(Sherp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셰르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경력직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을 갖춘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한 뒤,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로, 인력운영 효율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동해발전본부는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해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을 추진 중인 동해·삼

척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과 1대 1 연결을 완료했다.

파견된 '셰르파' 인력은 약 6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수소 전환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재생 평가센터,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같이 수소 관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세제 혜택,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해발전본부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험 있는 임금피크 인력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산업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은 "임금피크 전문인력의 직무 경험을 지역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 모델이 수소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허정수, WTO 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 의장 선출

(주제네바 공사참사관)

“공정·투명 세계무역 질서확립 기여”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사진)이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2016년 김진동 참사관, 2020년 최성요 참사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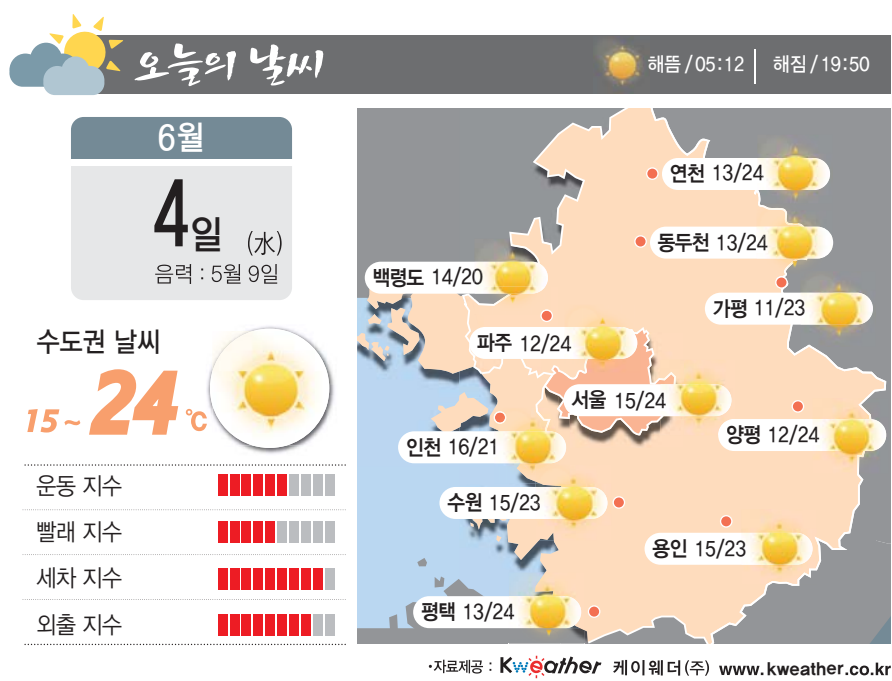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

심 협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와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日정부, 韓대선일에 “韓은 중요한 이웃나라… 협력 중요성 불변”

/사진 뉴시스

▲트럼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무기 비축하고 있어”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이번주 통화할듯”… 갈등 봉합 시도

▲러우, 최대 포로교환 합의·휴전 불발… 러, 2단계 평화각서 제시

▲中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사망… 과거 시진핑 군권 확보 도와

▲“30분 넘는 낮잠, 조기 사망 위험 높인다”美 11년 추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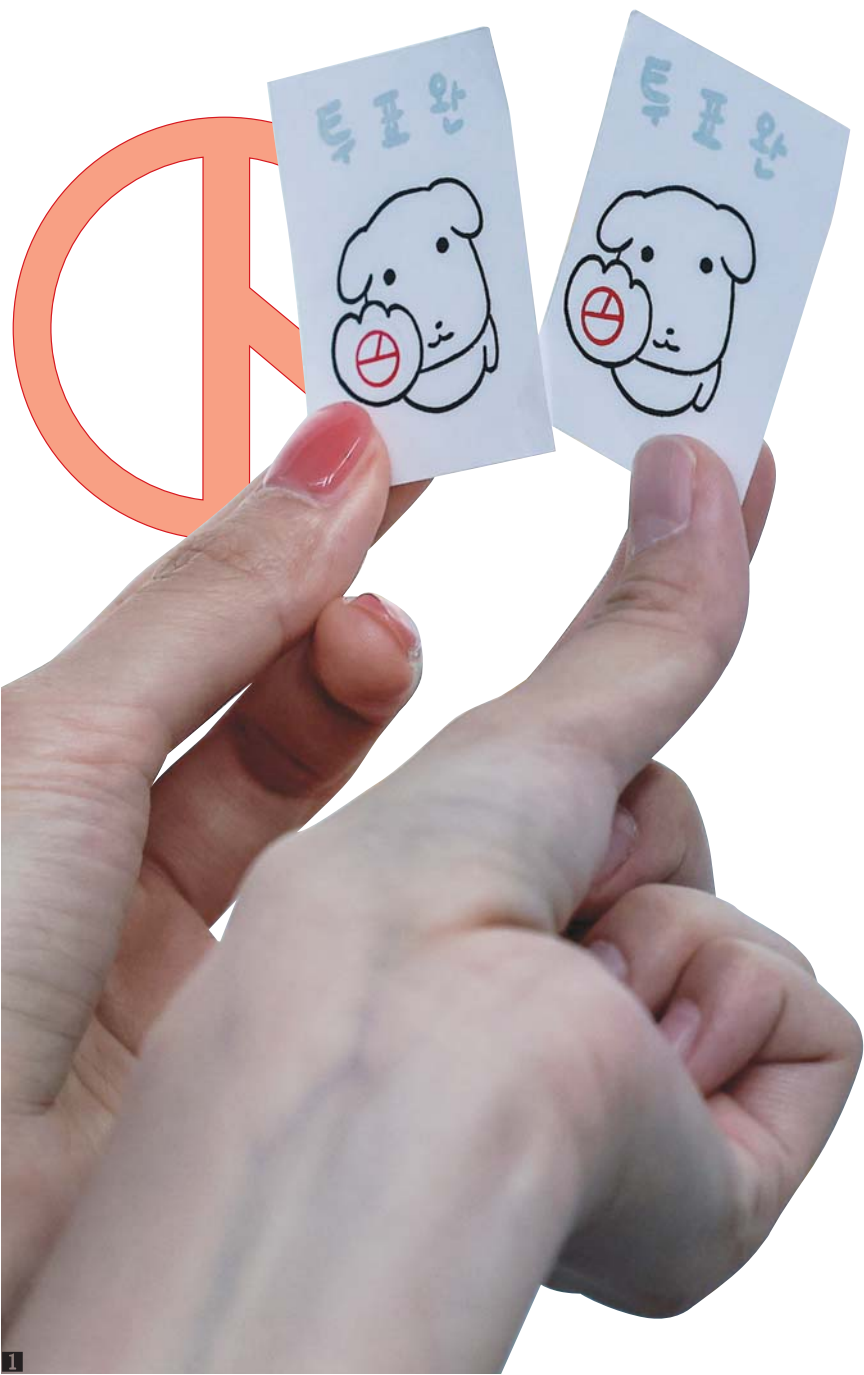


SPC삼립
공장 일부 재가동
빵 수급차질 지속
L1

metro®

Life

웰니스 브랜드
'마인드북'
감각적 명상 제시
L2



121세 할머니도, 18세 학생도 '한 표'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첫걸음 '한 표'



- 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찍고 있다.
- 2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 3 충북 옥천군 최고령 유권자 이응금 할머니가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참정권을 행사한 후 큰 딸과 함께 투표장을 나서고 있다. 할머니의 주민등록 나이는 121세지만, 실제 나이는 그보다 10여 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4 경기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찍고 있다.
- 5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센터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6 서울 구로구 공동우편취급국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아기와 함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 7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강아지와 투표를 하고 있다.
- 8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센터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용지를 건네 받고 있다.
- 9 제21대 대통령 취임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관계자들이 취임식장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두산 지휘봉 잡은 조성환 감독대행 “선수가 포기 안 하면 팬들도 포기 안 해”
▲‘선발 복귀’ 김혜성, 멀티히트에 도루까지 맹활약…팀은 3-4 패배 /사진 뉴시스

▲하루 씬 이정후, 5타수 1안타에 시즌 6호 도루…세 차례 삼진은 ‘아쉬움’
▲“PSG, 몸값만 맞으면 이강인 이적 허용” 프랑스 매체

▲홍명보호, 기온 44도 결전지 이라크 입성…방탄버스로 이동
▲美성전환 선수 우승에 트럼프 “연방 지원 끊겠다” 경고